



4면

찾아들길서 '공동체라디오' 방송

전주매일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음 1월 17일) 제29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구축 협력'

전북도-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 개최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혁신역량 제고 정부 지원방안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와 전북도는 16일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에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입주기업(앵커, 협력기업 등), 연구기관 등 특화단지의 혁신주체 간 정책적인 소통 채널을 신설해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특화단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에 처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경호 소재 부장(산업정책관), 신원식 전북도 정무 부지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재 부품개발사업단 및 추진단 협의회 대표단(22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협력 R&D,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기획 내용 등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 ▲이차전지 파우치 등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 지원, ▲탄소섬유, AI 기반 정밀기계 등 소부장 신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

력 R&D 추진한다.

아울러, 입주기업과의 수요를 연계하고, 단지별 밸류체인을 완결하기 위한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로드맵(22~24년)'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약 200여종의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탄소 복합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공정의 신속한 현장 적용 단지 내 협력기업의 현장 애로사항해소를 위한 '재직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앵커기업의 2022년 기술·인력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의 취지, 내용,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앵커기업의 우수(미활용) 기술 이전으로, 특화단지 내 협력기업의 ▲연구개발 소요비용·시간 절감, ▲사업화 기회 확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장 방지 및 민간 활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정보화 시스템 도입(안)과 우수·유망 소부장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및 투자를 위한 '(가칭)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안)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개발정책관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16일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에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로, 우리나라 공급망 내재화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특화단지 관련 신규 정책 수립, 신규 사업 기회 등에 반영하겠으며, 향후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그 동안 지역산업으로 육성해 오던 탄소소재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같이 핵심 국가 5대 핵심소재 산업으로 육성된다는 점이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전북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사

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효성첨산소재와 도내탄소기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역 혁신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계획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17가지 준수사항 지켜야

전북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5~10%(최대 100%) 감액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주의장난을 발급하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비대면 및 방문 접수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비대면 접수는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방문 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

도 치안경찰위, 생활 주변 안전망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수립 "진정한 주민 맞춤형 치안경찰체 실현 위해 제도개선 시급"

전북도 치안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잡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도민 소통을 통한 전북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안정책의 효율성 확보, 생활주변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실행과제를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민 참여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치안경찰 엠블럼(EM)과 캐릭터 등을 3월까지 대국민 공모·선정하고, 치안경찰체 관련 매체 및 홍보물품을 제작해 도내 전관망 및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정책제언 및 정책공포진 민·경 현장(1)담합회와 협력차인활동을 확대·강화하고, 보이스피싱·농산물 절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위원회는 현 치안경찰체가 치안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치안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해 진정한 주민 맞춤형 치안경찰체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먼저, 치안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로 명시해 자치사무로서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치안경찰직' 신설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치안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오는 2023년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태료·범죄금 등 자치경찰 재원을 활용하거나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핵심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이다. 자율방범대와 같은 민간차인협력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형구 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전북도의회 경찰청과 소통하고 협업체계를 굳건히 해 관련 법령 등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자치경찰이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2/4 입춘
2/19 우수
3/5 경칩

희망과
확신

2022년
코로나 종식!!

전주 현대옥
JEONJU HYUNDAIOK
Korea Restaurant Since 1979

전북, 종합 9위로 목표치 이상 달성 | 전국 장애인동계체전 최종 결과

전북선수단이 종합 9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13~16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개·폐회식이 취소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에서 4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전북도 선수단은 대회기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대회 으뜸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선수단은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권상호(지체·입식)선수가 우수한 경기력으로 대회 4관왕을 차지했으며, 김정민, 최선웅(시각·입식) 두 선수 또한 값진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특히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전북선수단은 종목 종합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방상 김아라(지적), 알파인스키 이기호(청각) 선수가 각각 4위를 차지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신인선(수화·시각), 최지훈, 방진석(지적)들의 선전으로 향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

이번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종합 9위를 차지했다. 종합점수 5,902점을 획득해 지난 대회보다 2,539점을 추가 획득하면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금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면서 메달순위 4위를 차지했다.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대회 고득점을 획득했던 선수의 부상 때문 불출전과 타시·도 이적으로 인해 종합점수 하락을 예상했으나, 신인선 선수들의 선전과 단체종목 아이스하키의 고득점 획득으로 종합점수의 향

상을 가져왔다.

향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각결빙 남·여팀을 신규 구성하고 컬링과 아이스하키 등 단체종목 집중 육성이 절실하며, 개인종목에서도 장애인형별 신인(유망)선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시 훈련 환경 조성, 지속적 장비 지원, 전문지도자 배치 등도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동계종목 특성상 어려운 훈련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점수배점이 높은 단체종목의 집중육성과 신인선수 발굴·육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